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임시사무실로 이전

청사 신축 위해 12월 9일부터 새로운 임시사무실에서 업무 개시

임봉순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4-11-30 17:18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임시사무실 위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지사장 김덕규)는 2024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임시사무실로 이전을 완료하고, 12월 9일부터 새로운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청사의 신축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고객과의 소통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사신축공사는 현 사무실 위치에서 내년 2024년 1월부터 약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임시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행정업무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시사무실의 위치는 서산시 안견로 252 5층과 6층이며, 이전 후에도 기존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민원 및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덕규 지사장은 "청사 신축공사는 고객과 직원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며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불편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공사가 완료된 후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며 "서산태안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농어촌 발전과 효율적인 물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임봉순 기자 ibs9900@
